



고린도전서1:1-9 부르심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었습니다. 10절 부터가 그 내용입니다. 처음 고린도교회가 설립된 것은 바울의 2차 전도여행 기간중에 (A.D. 50년경) 당시 아덴에서 부터 이곳 고린도로 온 바울은 처음에는 타락하고 부패한 도시의 죄악상을 목격하고 심이 두려웠다고 합니다.(2:3)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박히신 것'(2:2)을 전파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심후 그는 훌륭한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18:2에 등장하는 '브리스 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리고 마케도네로 보냄을 받은 디모테와 실라가 돌아오면서 본격적으로 고린도의 복음 사역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13장과 17장에 보면 바울은 안식일 마다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대상으로 성경을 강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정면적인 반대를 받습니다.(행18) 급기야는 이방인에게도 돌아가리라고 그는 선언하기까지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는 이방인의 집으로 옮겨 회당장 그리스보를 비롯해서 많은 고린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게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극적인 상황에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10절 이하에 등장하는데 이 이야기들을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에게 까지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 사안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든 바울은 드디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것이 오늘날 고린도 전서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서는 그래서 교회의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해결을 위한 신약성서의 중요한 문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의 문제를 다룰때 혹은 교회의 건강한 비전과 신앙생활을 위해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지혜를 얻습니다.

1.예수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2.3)

2절 '...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다 ...' 3절 '....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터 ...'

10절 까지 '예수그리스도'라는 이름이 10번 나옵니다. 바울은 잠깐의 문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10번 기록합니다. 이렇게 예수그리스도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려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있는 바울의 핵심적인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주신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해결받았더라는 증거가 복음서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주셨고 그분이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앙의 원리임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요15:10)



담임목사 : 김원기  
(Pastor, Wonki Joseph Kim)

www.dongsanoflove.org  
(교회) 9440 Balboa Bl, Northridge, CA 91325

☎ 818.518.5108(교회)